

광양시, 2022년 전남도 유망중소기업에 7개 업체 선정

정책자금 융자 한도 상향·우대금리 등 혜택

광양시는 '2022년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에 지역 중소기업 7개사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성장 잠재력이 높고 기술력이 우수한 지역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해 강소·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년 '전남도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유망중소기업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20억 원 이상, 국내 중소기업

가운데 시·군 서류심사를 거쳐 추천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상태 평가, 기술 평가,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의 종합평가를 통해 전라남도도 최종 선정한다.

올해 도 내 선정업체는 총 71개사로, 광양시의 경우 전라남도에 추천한 7개 업체 모두가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선정된 광양시 유망중소

기업은 ▲㈜대운인텍(대표 이상수) ▲㈜에스더블테크 대표 고재식) ▲㈜하나테크(대표 심상룡) ▲㈜메인테크(대표 정창환) ▲㈜엠이시(대표 김상호) ▲㈜대신이엔에스(대표 김대섭) ▲㈜대평(대표 정금량)이다.

선정기업들은 전라남도의 성장단계별 중소기업 육성전략에 따라 지정기간인 3년 동안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한도 상향과 대출이자 지원 우대를 비롯해 판로·수출분야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받는다.

시에서는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이차 지원을 상향 및 최고경영인상, 산업재산권 인증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각종 우대사항을 제공한다.

한편, 시는 전남 유망중소기업으로 지난 2020년 13개사, 2021년 9개사가 선정돼 현재 도내 최다 유망중소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이유빈 기자

곡성군 농특산물 상생장터 성료

다양한 품목 구성·이벤트로 인지도 ↑

곡성군이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곡성군 농특산물 상생장터를 운영해 약 3천 900만 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이번 상생장터는 농특산물 직거래를 통한 생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곡성군이 마련했다. 우수 농특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곡성군의 9농가(단체)가 참여했다. 참여 농가들은 토란 픽미집, 곡성멜론, 삼기찰옥수수, 유기농 백세미 등 45여개 품목을 선보이며 적극적인 시식 및 판촉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특히 곡성 와사비 아이스크림 홍보 및 증정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큰 호응과 관심을 받았다. 곡성군은 고소득 원에 특용 작물로 와사비를 육성하고 있다. 또한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유기농 백세미 증정 이벤트 행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곡성군 농산물 알리기에 힘을 쏟았다.

롯데백화점 본점 식품관 행사장을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관으로 구성한 것은 전라남도에서는 곡성군이 처음이다. 백화점 고객들에게 곡성군을 알리고, 판매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곡성군의 열의가 반영된 것이다.

곡성군은 이번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행사에 이어 다가올 추석과 김장철에도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곡성군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곡성군 농정과 직거래 장터 담당자는 "지역 농가가 더욱 튼튼한 소득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곡성군 주관 기획전, 특별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와도 연계해 농특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심선섭 기자

구례,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구례군은 2022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한다. 하반기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12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8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차량은 구례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천만원, 3종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불가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상한액을 600만 원으로 한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노후 경유자동차를 폐차한 이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면 1대당 200만 원을 지원한다.

군은 8~12일 신청서를 접수하며, 신청은 방문, 인터넷,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환경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심선섭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의 민선8기 첫 정례조회는 35세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순천시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 개최해야 하는지, 왜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시정철학을 강의형식으로 진행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 민선8기 첫 정례조회 개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세계 일류 창조도시에서 배우기'라는 열린 특강으로 민선8기 첫 정례조회를 가졌다.

이날 정례조회는 35세 이하 공무원 대상 순천시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 개최해야 하는지, 왜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시정철학을 강의형식으로 진행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생태'라는 낯선 개념을 시정에 도입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돼가는 '순천만'을 보존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순천만'을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 '정원박람회'였으며, 정원박람회장 그림을 그리기 위해 벤치마킹했던 본저류지 등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를 융·복합해서 순천에 맞게 재창조한 것이 정원박람회라

고 설명했다. 또한 '정원'이라는 다소 생소한 문화가 정원박람회를 통해 전국에 정원문화로 확산시키고, 이처럼 새로운 것을 통해 가치를 창출해 대한민국의 표준을 만들었듯이, 순천시 MZ세대 공무원들과 함께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성공 개최를 위해 일류 창조도시 순천의 미래를 상상하며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이유빈 기자

여수 낭도서 '남도바닷길 캠핑대전' 개최

대동놀이·공연·별자리 해설·포트락 파티 등 풍성

여주시(시장 정기명) 생태관광지 낭도에서 '남도바닷길 캠핑대전'이 열린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중 6권역 프로그램으로 남도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캠핑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됐다.

8월부터 11월까지 여수와 순천, 광양, 보성에서 각각 3차례씩 총 12회 개최된다.

여수 낭도캠핑장에서는 8월 19일과 26일, 9월 2일에 개최되며, 모집 인원은 회차 별 36팀이다.

참가비는 13만원으로, 캠핑장 1면과 지역특산물(쌀, 돼지고기, 수산물)이 제공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당일 저녁 대동놀이, 문화공연, 장기자랑, 별자

리해설, 서로 음식을 나눠먹는 포트락 파티, 웰니스 명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남도바닷길 캠핑대전 홈페이지(www.namdo-ocean.com)에서 선착순으로 실시간 예약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캠핑대전 사업추진단(061-921-55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캠핑대전은 캠핑장에 쓰레기만 남기고 가는 캠핑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과 캠핑객이 공생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획했다"면서 "캠핑 참가자들이 함께 즐기고 나누며 아름다운 남도바닷길을 만끽하는 특별한 체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빈 기자

